

[사회]

■ **광주일보·광주 대성학원 공동 ‘대입 무료 설명회’**



광주일보와 광주 대성학원은 16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08 대입 눈술 무료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위적림기자 jrwi@kwangju.co.kr

“**성적 비슷한 학생끼리 경쟁
결국은 눈술서 판가름날 것**”

내신 실질 반영비율 대부분 20% 안팎

2008학년도 대학입시는 내신·수능·눈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죽음의 트리아앵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광주일보와 광주 대성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2차 ‘2008 대입 무료 설명회’에서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같이 말하고 “수도권 대학을 가려면 남은 시간 착실히 눈술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사는 “표면적인 눈술의 비중이 내신(40%), 수능(50%)에 비해 10%로 가장 낮지만 내신과 수능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으므로, 눈술에서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600여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서울권 주요 대학의 입학 전형과 내신 및 수능 비중, 배치기준표와 대학 환산점수 보는 법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이상의 설명에 따르면, 수능 100% 전형이 아닌 경우 학생부(내신) 반영 비율은 대개 50%이지만 실질반영 비율은 20% 안팎이다. 고려대의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은 17.96%로 수능의 79.04%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서강대는 학생부 21.28%·수능 76.50%, 연세대 인문계 학생부 22.20%·수능 74.71%, 자연계 학생부 22.76%·수능 74.08%, 성균관대 학생부 23.64%·수능 72.73%, 한양대(인문계) 학생부 23.59%·수능 72.22% 등이었다.

이처럼 실질반영 비율은 훨씬 작아졌지만 지난해 실질반영 비율 3~5%에 비하면 4~6배 이상 내신의 반영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졸업생 등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학생부 성적 상위 1~4등급까지는 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고려대는 지난 12일 모집 요강을 바꿔 삼수생까지만 적용하던 비교 내신을 재수생으로 확대한다

고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에 대한 차별력은 눈술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에는 눈술 고사에서 1천800자 짜리 한 문제만 출제했으나 올해 수시 2-2에서 800자, 800자, 1천자 3문제를 낸 것은 눈술로 당락을 가르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임동일(19·재수생)군은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는데다 가고 싶었던 고려대는 삼수생까지만 비교내신을 쥐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설명대로 비교 내신의 적용을 받는다면 도전해볼 만하다”며 “눈술에 ‘올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 유모(여·46·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는 “딸 아이가 고대에 원서를 넣을 작정인데 고대는 가나군에서만 정시를 모집하기 때문에 다군에는 어떤 학교들을 지원해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참석했다”며 “등급제가 너무 복잡해 설명을 한 두번 들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학원·교습소 보험가입 의무화

광주시교육청 ‘설립·운영 조례’ 개정 추진

광주시내 학원과 교습소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광주지역 학원 교습소가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사고 건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교습소는 5억 원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은 학습자를 체

벌해서는 안되며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도 적정하게 안배해야 한다.

예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권·건강보호를 위한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명시했으나 시 의회는 강제조항으로 수정·의결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해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학원들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왔지만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강의실, 열람실 등의 규모와 급수시설, 방음·소방시설, 환기·채광·조명·온습도 조절 시설에 대한 기준도 담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내년 공립유치원 4학급 신설

정원 120명 증원

내년, 광주에 공립유치원 4학급이 신설된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오치·금호·도산초등학교 등 3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3학급이 신설되고, 북구 동림동 2지구 빗고유치원에 1학급이 증설되는 등 총 4학급 정원 120명이 증원된다.

시교육청은 또 2009년도 개원을 목표로 진원택지지구 내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가칭 ‘진남유치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지

역의 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개설로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유아교육비 경감과 사회양극화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선발하고 세 자녀 이상 학부모에 우선권을 준다. 한편 광주시에선 공립유치원 106곳 167학급, 사립유치원 128곳 538학급 등 총 705학급에 정원 2만1천800여명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02~03학년도 수능
점수 반올림은 정당
대범, 배상 인정 원심 깨**”

2002~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각 대학에 소수점을 반올림한 점수를 입학전형 자료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형석 대법관)는 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모씨 등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 넓은 재량을 가지며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은 재량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문씨 등은 2003학년도 수능을 치른 뒤 A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자 평가원이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입학전형 자료로 배포해 입시에서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 문모씨 등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연필뉴스

구름 가득 12월 17일
(음 11월 8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많음	-1~9℃
대전	구름 많음	1~9℃
대구	구름 많음	2~10℃
부산	구름 많음	1~9℃
서울	구름 많음	-4~9℃
인천	구름 많음	-2~9℃
안동	구름 많음	-2~9℃
울산	구름 많음	-2~10℃
전주	구름 많음	2~9℃
제주	구름 많음	-2~8℃
충청	구름 많음	-4~9℃
강원	구름 많음	-2~9℃
경남	구름 많음	-2~9℃
경북	구름 많음	-4~8℃
충남	구름 많음	4~8℃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동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7:04 썰물 < 00:15
목포 밀물 < 19:33 썰물 < 12:22
여수 밀물 < 01:40 썰물 < 07:40
여수 밀물 < 14:14 썰물 < 20:44

▲해돋이 07:34 ▲해질 17:22 ▲달돋이 12:00 ▲달짐 --:--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날씨						
최저/최고	0/8	-2/8	0/9	2/8	1/9	3/8

아파트 소방호스 구리 관창 또 도난

1,300여개 싹쓸이

광주시내 아파트 단지에서 또다시 소방호스 구리 관창(管槍·nozzle) 등이 도난당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일 북구 문흥동 J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구리 관창 등 80여 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광주지역 아파트 소화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최근 30개 아파트 단지에서 1천359개의 구리

관창과 연결소수관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관창절도범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는 한편, 관창이 사라진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남아 있는 관창을 분산 배치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올 들어 55개 아파트에서 3천264개의 관창이 도난당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서석영어센터’ 오늘 개원
초등생 3,800명 무료 현장 학습 가능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최초로 학교 일부를 ‘영어 마을’로 만든 ‘광주서석영어센터’가 문을 연다. 동구청은 “광주서석영어센터가 17일 동구 서석초등학교에서 개원, 중앙초 등 관내 9개 초등학교 3천800여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영어 현장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고 16일 밝혔다.

동구청은 국비 3억5천만원, 구비 1억원 등 4억5천만원을 들여 서석초교의 빈 교실 7개를 리모델링했다.

수업은 평일, 주말, 방학마다 다르게 운영되며 평일에는 1학급 전체 학생들이 학교의 영어 수업 시간에 맞춰 센터에 드리고 주말에는 30명의 학생이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며 방학에는 영어 캠프가 운영된다.

‘광주서석영어센터’에는 극장·은행·문구점·지하철 매표소 등 다양한 체험 코너가 설치됐고, 원어민 영어교사 3명과 한국인 보조교사 3명 등 교사 6명이 지도하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18회 공인중개사시험 시범합선 전국 수석 2명 배출! (연태관, 조종아) 2기
개강 1월 2일 (수) 1기반사 이후 3개월 집중, **국비무료** (내과, 중과, 대과) 2기반
새 초 행정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1월 2일 주택관리사
광주고시학원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수료 / 집 / 대 / 상 수
무비료·중요 어반이 미술 교실 특강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